Vol. 22 No. 1049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rch 20 2026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주정부가 매사추세츠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부속주거유닛(ADU) 건축자금을 최대 25만달러까지 대출키로 했다. 사진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발표하고 있는 모라 힐리 주지사

주정부 ADU 건축자금 최대 25만달러까지 대출 지원

주정부, 세컨드 모기지로 별채 또는 부속주택 신설 도와
분리형 ADU는 최대 25만달러, 부착형은 최대 15만달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매스하우징이 매사추세츠 주택 소유주를 위한 새로운 부속주거유닛(ADU)융자 프로그램을 17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부지에 추가 주거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 25만달러의 세컨드 모기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 예고됐던 정책의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ADU는 단독주택과 같은 부지 안에 함께 들어서는 소형 주거공간이다. 주택 내부를 개조해 만들 수도 있고, 별도의 독립된 구조물로 지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살 수 있는 다세대 가족 주거 방식, 노년층의 독립적 거주, 임대 수입 확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힐리 주지사는 "주민들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것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ADU는 주택을 늘리고 지역사회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포더블 홈스 액트를 통해 ADU를 주 전역에서 합법화했고, 이제는 매스하우징과 협력해 실제 건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리형(detached) ADU의 경우 최대 25만달러, 기존 주택과 붙어 있는 부착형(attached) ADU의 경우 최대 15만달러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매스하우징은 자격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연 5.25퍼센트 금리로 ADU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전체 금액을 하나의 모기지로 제공하는 대신, 일부는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일반 대출로, 나머지 일부는 무이자 및 상환 유예 자금으로 묶어 제공하는 창의적인 대출 방식이다. 주정부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차입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추고, 일반 대출만으로는 어려운 더 큰 규모의 공사비 조달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역 중위소득의 135퍼센트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은 동부 매사추세츠 20만5,335달러, 우스터카운티 16만5,345달러, 햄든카운티 12만9,870달러까지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대출 심사 ▸▸14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시 · 타운 공동구매, 전기요금 10% 절감 효과

지자체 공동구매 전기요금제 확산…주민은 자동 가입 후 원하면 탈퇴 가능
배송비는 그대로지만 전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매사추세츠의 점점 더 많은 시와 타운들이 주민들을 대신해 전기를 대량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요금 절감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뮤니시펄 애그리게이션' 또는 '커뮤니티 초이스 애그리게이션'으로 불리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대표해 민간 전기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매사추세츠 공공유틸리티국(DPU)에 따르면 현재 주내 타운의 약 70%가 이 같은 전기 통합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승인 절차를 밟는 곳도 늘고 있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타운이나 시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참조)

주정부는 2024년 이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신규 계획 승인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47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승인됐고, 새로 가입한 주민들은 내셔널그리드, 에버소스 등 기존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들의 기본 공급요금보다 매달 2달러에서 18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기사 읽기〉

이 제도의 핵심은 전기 공급요금(Supply Services)을 낮추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내셔널그리드 고객이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나 타운이 다른 전기 공급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전기 공급은 그 업체가 맡고 송전망과 배전망 운영, 전기 전달, 전봇대와 전선 유지 관리는 기존 유틸리티 회사가 계속 담당한다. 주민은 여전히 한 장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으며, 고객 ▸▸14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회가 30주년 행사를 14일 벌링턴 소재 세븐스프링스 콘도 클럽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강원도민회 회원들의 모습

보스턴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김진태 도지사 축사, 공로패 · 감사패 증정, 공연과 만찬까지 50여 명 참석해 도민회 30주년 함께 축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강원특별자치도민회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5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해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30주년 기념행사는 이학재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박형태 도민회장이 도민회의 연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했으며, 미주 강원도민총연합회 안병학 회장이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민회를 위해 헌신해온 인사들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식도 마련됐다. 초대 회장인 이운로 전 회장, 초대 고문인 고 이강원 전 회장, 그리고 보스턴 강원도민 고종성 박사가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 앞서 참석자들은 고인이 된 이강원 전 회장을 기리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기사 읽기〉

이후 참석자들은 난타와 부채춤 공연을 관람하며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다양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대형 기념 케이크 커팅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번 기념회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보스턴지회 허훈 회장, 뉴잉글랜드 한인회 김동원 이사장과 장인숙 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한미노인회 김인숙 회장, 의사협회 김은한 박사 등 여러 단체장과 한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보스턴지부, 4월 25일 연례 모금 만찬 개최

보스턴 지부 30주년 기념 행사, 평화의집 쉘터 구축과 2세 지원 위해 후원 모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보스턴지부가 오는 4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첼스포드-로웰 엘크스 롯지에서 연례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스턴지부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축하와 후원을 함께 나누는 행사로 마련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Peace Village에서 이뤄지는 여러 평화 · 봉사 활동과 더불어, 매년 이어져 온 지원 사역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참가비는 1인당 100달러다. 주최 측은 올해 모금된 후원금을 평화의 땅과 평화의집 쉘터 구축, 2세 지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과 미망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스턴지부는 초청문에서 "올해는 보스턴 국제선 3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뜻깊은 해"라며 지역사회와 후원자들의 관심

〈전체 기사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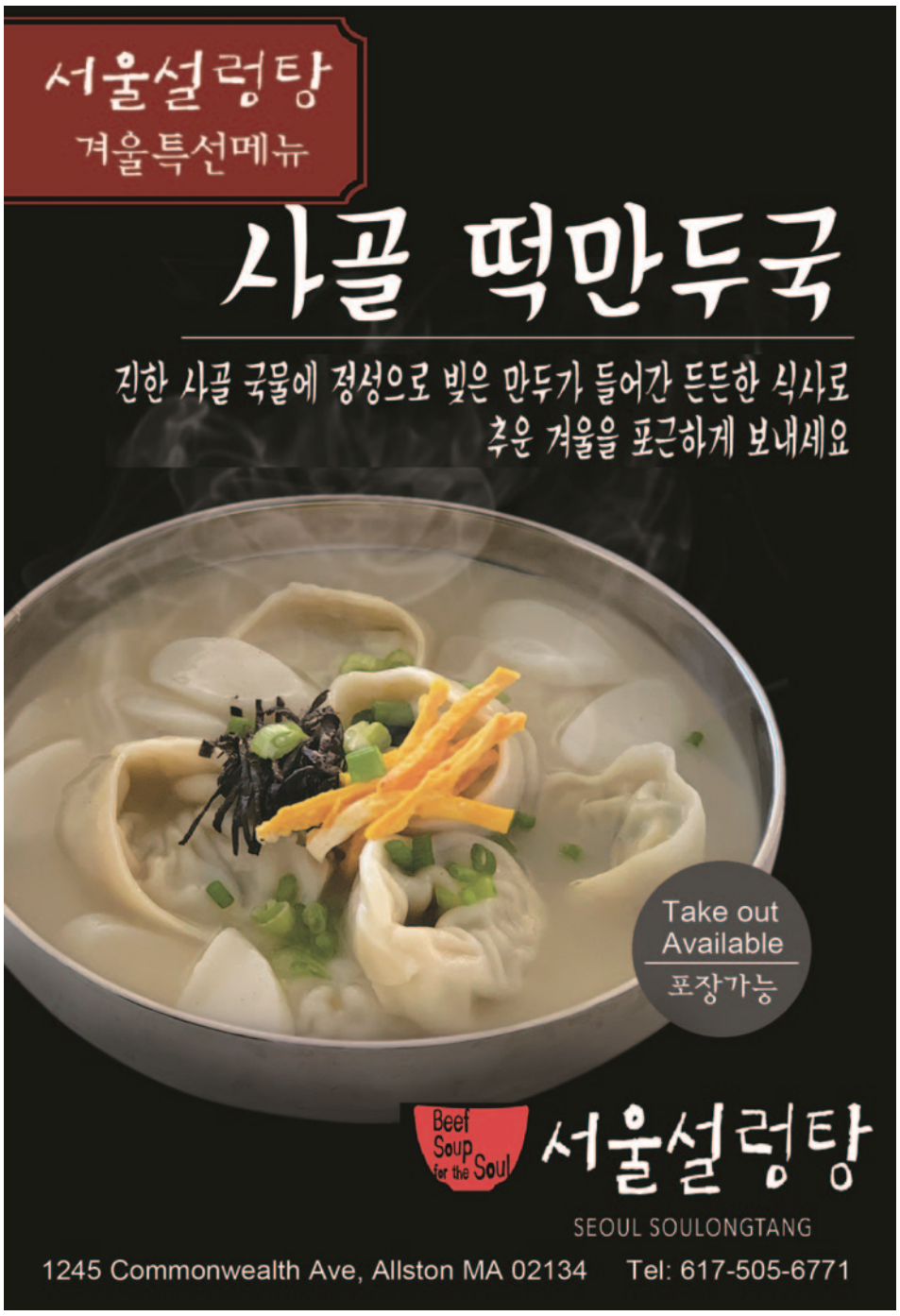


참여를 요청했다. 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문의는 Mission Nisbet 603-706-0419, Kim Walsh 978-407-7554로 하면 된다. 수표로 후원할 경우 수취인은 NAICFM이며, 우편 주소는 7 McHugh Farm Lane, Chelmsford, MA 01824다. 주최 측은 NAICFM이 501(c)(3) 비영리단체로 후원금이 세금 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시: 4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행사 장: Chelmsford-Lowell Elks Lodge(300 Littleton Road, Chelmsford, MA 01824)







2025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지난해 8월 애틀랜타에서 열린 UKC 2025에서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재미과기협, 2026년 장학생 및 펠로우십 모집

학부생 20명, 대학원생 20명, 포스트닥 5명 선발
3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수상자는 5월 말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미국 내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장학생 및 펠로우십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모집은 수학, 과학, 공학, 의약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해당 전공 재학생 및 연구원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여야 한다.

학부 장학금은 총 20명에게 각 1,500달러씩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친 재학생이다. 대학원 장학금은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이사장 홍원화)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KSEA-KUSCO 장학금으로, 총 20명에게 각 2,000달러씩 지급된다.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을 위한 Postdoc Fellowship도 마련됐다. 연구 성과가 우수한 포스트닥 5명을 선정해 각 2,5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된다. 대학원 장학금 수상자들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2026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6)'에 초청돼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응모 마감은 3월 31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이력서 등이다.

KSEA 장학위원회는 성적, 에세이, 추천서 내용뿐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와 KSEA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이강원 로드아일랜드대 교수가 맡고 있다.

신청은 KSEA 장학금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요강과 제출 서류 안내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KSEA 장학위원회 : scholarship@ksea.org

►온라인 신청 및 안내 : https://www.ksea.org/scholarship

〈전체 기사 읽기〉

bostonkorean@hotmail.com

2026 코리안 문 어워즈 후보 추천 접수 시작

뉴잉글랜드 한인사회 6개 부문 수상자 선정
10월 3일까지 후보 추천, 10월 30일까지 온 · 오프라인 투표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인물과 단체를 선정, 수상하는 '2026 코리안 문 어워즈'의 후보 추천 접수가 시작됐다.

코리안 문 어워즈는 뉴잉글랜드 한인사회가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뽑는다.

시상 부문은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차세대 리더', '올해의 커뮤니티 단체', '올해의 기업인 또는 비즈니스', '10년간의 자원봉사자', '올해의 동맹상', '올해의 예술인' 등이다. 본인 추천도 가능하며 적극 권장된다.

후보 추천 접수는 현재 진행 중이며, 마감일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추천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KACL-NE 행사 현장에서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온라인 또는 우편 투표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해의 예술인' 부문은 일반 투표가 아닌 보스턴 한미예술협회가 별도로 선정한다.

〈전체 기사 읽기〉

최종 수상자는 11월 15일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맞춤 제작된 문항아리가 수여되며,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수상 내용은 보스톤코리아 신문에도 게재된다.

주최 측은 문 어워즈가 뉴잉글랜드 한인사회의 헌신과 성취를 조명하고,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5년 문 어워즈 수상자 시상식은 보스톤코리아를 통해 소개된 바 있으며, 각 수상자에게는 특별 제작된 문항아리가 전달됐다. 2025년 문항아리 작가는 박경민 씨, 2024년 문항아리 작가는 김연수 씨였다.

후보 추천은 다음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forms.gle/9ExK3wxBggKMGGqh6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20th - MAR. 26th,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 40 years Since 1982 · H MART

Kimchi EVERYDAY PRESENTED BY H MART

MINARI PORK JOWL STEAK



Golden-seared pork jowl paired with the clean, aromatic bite of minari creates a harmony in every bite. Simple ingredients, striking flavor. Find your ingredients at H Mart and recreate it at home.

노릇하게 구운 항정살에 향긋한 미나리를 더해 한입마다 느껴지는 완벽한 조화! H 마트와 함께 미나리 항정살 스테이크를 만들어보세요.



Frozen Durian 냉동 두리안 LB $2.99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9.99

Chinese Chive 중국 부추 $2.99 LB

USDA ORGANIC

Organic Korean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10.58 OZ/PKG $2.99

Gray Squash 그레이 호박 LB $0.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trawberry 딸기 1 LB/PKG 2 FOR $2.99

SPEND $60 AND MORE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PRODUCT OF KOREA 4 CNT/BOX $14.99

Jumbo Yellow Onion 양파 LB $0.49

Thai Guava 타이 구아바 $3.99 LB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PRODUCT OF ISRAEL $2.49 LB

Green Onion 파 BUN 4 FOR $1.99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0.99 LB

Shine Muscat Grape 샤인 머스켓 포도 1.32 LB/PKG $9.99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1.99 LB

신선한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돼지등심 커틀릿 (돈까스용) SLICED/LB $5.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7.99

Fresh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WHOLE PIECE/LB $4.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3.99



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6.99

싱싱한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Abalone from Wando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3.99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6.99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2.99

Frozen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LB $2.99



Fresh Butterfish 병어 200-400'S/LB $3.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OFOOD Real Kimchi Ramen Noodle Soup 오푸드 리얼 매콤 김치 라면 $9.99 4.93 OZ X 6 EA/BOX

H MART SMART CARD ONLY



OFOOD Real Fiery Kimchi Stir-Fried Ramen 오푸드 리얼 매콤 김치 볶음라면 $9.99 5.39 OZ X 6 EA/BOX

H MART SMART CARD ONLY



THE HOUSE MANDU Spicy Pork & Vegetable Dumpling 그집만두 매운 왕교자 $6.99 24 OZ

H MART SMART CARD ONLY



THE HOUSE MANDU Pork & Vegetable Dumpling 그 집 만두 참만두 $6.99 1.65 LB



KTOWN Hula Ramyun 케이타운 훌라면 $10.99 4.16 OZ X 16 EA/BOX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1.99



RAW NATURE Brown Rice & Brown Sweet Rice 자연담은 현미 반 현미 찹쌀반 15 LB $12.99



TERAOKA Soy Sauce for Eggs 테라오카 계란간장 $2.99 5.1 FL OZ



HALLA FOOD Tuna Sauce 한라식품 참치액 30.5 FL OZ $10.99



K TOWN Kimchi Fried Rice 케이타운 김치 볶음밥 $4.99 17.6 OZ



PULMUONE Sweet Rice Cake Dessert 풀무원 영양약밥 $6.99 11.2 OZ



CHUNG JUNG ONE O'FOOD Anjuya Spicy Stir-Fry Beef Abomasum 청정원 오푸드 안주야 매운막창볶음 $10.99 7 OZ



DAERIM SEON Pickled Radish 대림선 쌈무 새콤한맛 2 FOR $4 12.34 OZ



ORION O!Tube Cheddar Cheese Flavored Snack 오리온 오감자 $2.99 4.06 OZ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꿀 유자차 $5.99 2.2 LB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8.04 FL OZ X 12 CANS/BOX $11.99



ERATO MOI Flower Round Side Dish/Plate Ceramicware 에라토 모이 플라워 그릇 5.1 IN/5.9 IN/7.1 IN ~~$4.99-8.99~~ $3.99-6.49 EA



HELLO! Food Storage Roll Bag 헬로! 업소용 위생 롤백 ~~$11.99~~ $8.99 XLARGE 400 SHEETS EA



ROROBELL Wawa Mouthwash 로로벨 와와 구취제거 가글 ~~$14.99~~ $9.99 750 mL EA

JINGA EST. 1982

진가 반찬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둠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매사추세츠 주민 2만7천명 의료부채 탕감

비영리 협력으로 4,200만 달러 부채 자동 소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약 2만7천 명의 주민이 의료비 부채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받게 된다고 스테이트하우스 뉴스서비스(State House News Service)가 18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애트리어스건강평등재단(Atrius Health Equity Foundation), 의료부채 탕감 비영리단체 언듀메디컬데트(Undue Medical Debt, UMD), 매사추세츠 병원협회(MHA)의 협력으로 추진되며, 총 4,2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선정됐다. 재단 측에 따르면 개인 의료 부채가 연소득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배 이하인 주민들이 포함됐다.

언듀메디컬데트(UMD)의 앨리슨 세소 최고경영자는 "수만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부채 탕감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영리단체는 병원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연체된 의료 부채를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상환이 어려운 환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채 탕감 대상자에게는 이번 주 중으로 안내 서한이 발송된다. 지역별로는 반스터블 카운티 약 1만9,900명, 플리머스 카운티 약 1,860명, 미들섹스 카운티 약 1,400명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브리스톨, 에식스, 노폭, 서폭 등 여러 카운티 주민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재단 측은 신용기록에 대한 '소프트 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사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다. 2025년에도 2만5천 명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약 4,200만 달러의 의료 부채가 탕감된 바 있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연설에서 의료 부채를 신용평가 기록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보건정보분석센터(CHIA)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약 13.5퍼센트가 지난 1년 동안 가족 의료비 부채를 부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주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채를 발생시킨 주요 요인으로는 검사와 수술, 만성질환 치료, 치과 진료, 응급 치료 등이 꼽혔다. 의료 부채를 가진 주민의 53퍼센트는 저축을 줄이거나 인출해야 했고, 41퍼센트는 채권추심 기관의 연락을 받았으며, 36퍼센트는 신용카드나 차입에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재즈와 국악의 만남… 조미나 퀄텟, 릴리패드서 공연

3월 29일 오후 4시 〈Passion Moves〉 무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음악학자인 조미나 박사가 이끄는 미나 조 퀄텟이 3월 29일 오후 4시 캠브리지 인만스퀘어에 위치한 공연장 릴리패드(The Lily Pad)에서 콘서트 'Passion Moves'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조미나는 피아노와 장구를 동시에 연주하며 재즈 즉흥 연주와 한국 전통 리듬을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친다. 조미나는 그동안 한국 전통 음악과 영성, 재즈의 접점을 탐구해 온 음악가로, 판소리 칸타타와 사물놀이 판타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Percussioning Piano' 프로젝트를 통해 피아노와 장구, 다양한 퍼커션 악기를 결합한 새로운 연주 방식을 실험하며 즉흥 연주와 작곡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중동 퍼커션 연주자 조지 러니스가 함께해 피아노·장구와 퍼커션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듀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기타리스트 매튜 류와 베이시스트 맥스 리들리가 합류해 퀄텟 사운드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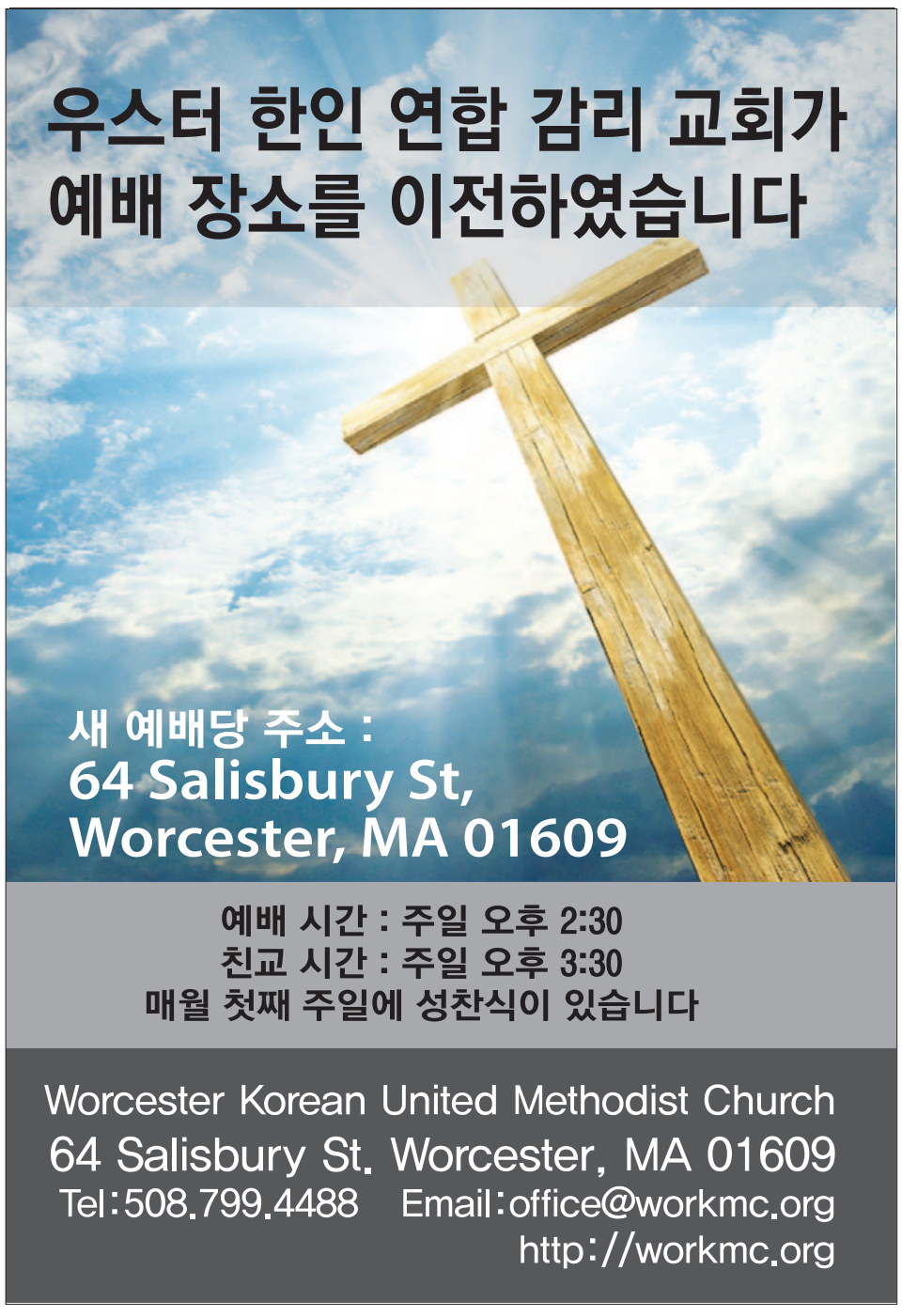
공연일인 3월 29일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Passion Week)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조미나는 이번 무대에서 '고난과 열정'이라는 패션(Passion)의 의미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아티스트이자 신앙인으로서의 내면적 성찰을 담아낼 계획이다.

조미나는 현재 국악재즈소사이어티(The Gugak Jazz Society)와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BAKT)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에머슨대 공연예술학부 협력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5년에는 브랜다이즈대에서 인당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예수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조미나의 연주 영상은 아티스트 홈페이지(www.minachojazz.com)와 인스타그램 계정(@minachojazz)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 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 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 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eh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ginateam@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ginateam@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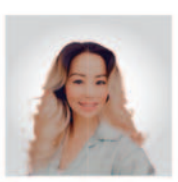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헌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i111@hotmail.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WWW.PRGBOSTON.COM

Licensed in MA,RI,CT,NY and GA

렉싱턴, MBTA 커뮤니티법 이후 '주택 붐'… 주민 회의론 확산

주택 부족 해결 앞장섰지만 학교 · 교통 부담 우려 커져
지난해 커뮤니티법 조닝을 22.7에서 9.0에이커로 축소 수정안 통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이 주정부의 대담한 주택 정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대규모 주택 개발 붐을 맞았지만,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와 회의론이 커지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약 3만5천 명 규모의 렉싱턴은 향후 수년 동안 약 1,600가구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이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수십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 매사추세츠의 대표적인 주택 개발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과도한 규제 해제를 되돌리는 움직임이 발생한 것이다.

이 변화는 2023년 렉싱턴이 매사추세츠의 MBTA 커뮤니티법(MBTA Communities Act)에 따라 새로운 조닝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법은 MBTA 교통망 인근 지역에 고밀도 주택 건설을 허용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주택 정책이다.

〈전체 기사 읽기〉

당시 매사추세츠 여러 도시들이 반발하거나 검토에 시간을 들이는 동안, 부유하고 진보적 성향의 도시로 알려진 렉싱턴은 이 법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 타운 미팅에서는 60% 이상의 찬성으로 계획이 통과됐고, 유명 인사들도 이를 주택 위기의 해결 모델로 평가했다.

렉싱턴은 약 22.7에이커 지역의 조닝을 변경해 최대 6층 높이의 고밀도 주택 개발을 허용했다. 당시 시 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10년 동안 400가구에서 8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로운 조닝 규정에 따라 별도의 특별 심사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다. 현재 렉싱턴에서는 1,600가구 이상의 주택이 이미 건설 중이거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이며, 넓은 부지의 단독주택 중심이었던 기존 주거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전 10년 동안 렉싱턴에서 승인된 다세대 주택은 단 두 가구에 불과했다.

초기에는 주택 부족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공감대가 컸지만, 대규모 개발이 현실로 나타나자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교 수용 능력, 교통 혼잡, 역사 지구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렉싱턴 플래닝보드(Planning Board)위원 티나 맥브라이드는 "주 전체의 주택 문제 해결에 우리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성장에도 한계라는게 있다. 너무 빠른 변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스턴글로브에 말했다.

베드퍼드 스트리트의 한 콘도 프로젝트가 추진되자 일부 주민들은 홍수 위험과 지역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새로운 조닝 규정에 따라 이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다.

결국 주민들은 조닝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시작했고, 지난해 타운미팅에서는 MBTA 커뮤니티법 조닝 면적을 22.7에이커에서 9.0에이커로 줄이고 건물 높이와 밀도 제한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모든 주민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렉싱턴 최연소 타운미팅회원인 20세 쿠날 보틀라는 주택 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최근 플래닝보드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보틀라는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예전 방식대로라면 렉싱턴의 집값은 계속 올라 젊은 세대가 살 수 없는 도시가 된다"며 "더 많은 주택이 들어서면 상권도 살아나고 젊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터프츠대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앞으로 하트웰 애비뉴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 스튜디오를 얻어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렉싱턴 같은 도시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같은 젊은 세대가 이곳에서 살면서 도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MAR. 19TH - MAR. 26TH, 2026

신라명과
SINCE 1984

LIMIT 2

Origin Sweet Red Bean Bread
신라명과 오리진 단팥빵



$9.99

26.52 OZ
(16 EA/BOX)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H MART

정식품
Dr.Chung's Food

LIMIT 2

Black Bean Soymilk
베지밀 검은콩 두유

6.4 FL OZ X 24 EA/
SPECIAL GIFT BOX

$1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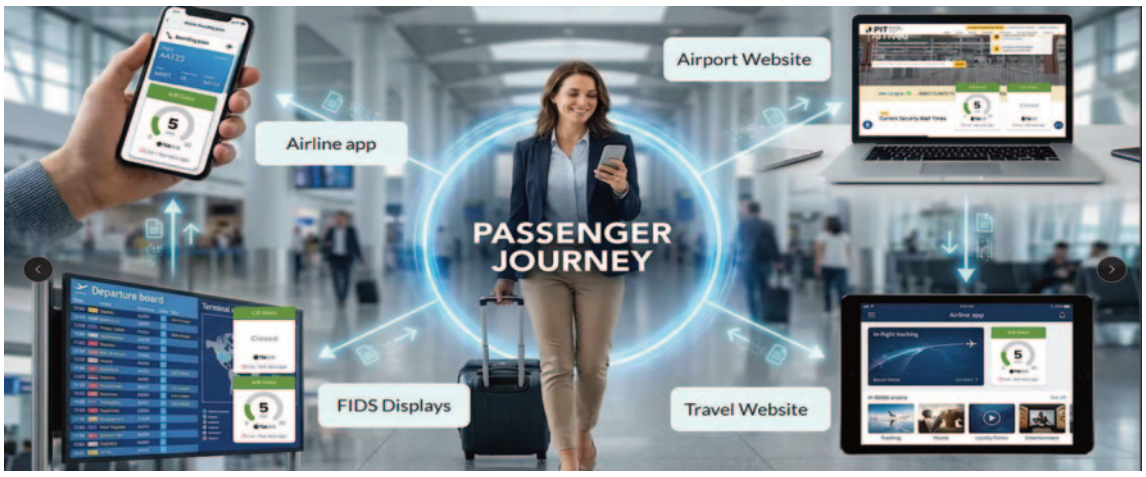
SPECIAL GIFT BOX
FREE



Free Gift: Scissors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로건공항, 출발 전 TSA 대기시간 확인 시스템 도입

4월 중순부터 웹사이트 · 앱 통해 보안검색 대기시간 실시간 제공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미국 전역 공항 보안검색 대기줄이 길어지는 가운데, 보스턴 로건국제공항이 승객들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 TSA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한다.

매스포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4월 중순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로건공항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항공사 앱 등을 통해 대기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에는 TSA 검색대 현장 스크린과 출발 전후 안내 전광판에도 관련 정보가 표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통안전청(TSA)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공항별 대기시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TSA의 MyTSA 앱은 여전히 로건공항을 포함한 일부 공항 대기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리치 데이비 매스포트 CEO는 "이용객들이 로건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전체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시까지 약 한 달, 길면 5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TSA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업체가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검색대 줄 길이와 이동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카메라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세부 모습이나 개인적 특징을 기록하지 않고,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인식한 뒤 이를 데이터로 전환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터미널 B에서 시험 운영 중이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공항 전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비슷한 시스템은 이미 덴버국제공항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일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을 통과하는 데 최대 2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은 2월 14일부터 시작된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주 약 5만명의 TSA 직원들이 첫 급여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300명의 직원이 사직했으며, 여러 공항에서 결근률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셧다운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에서 비롯됐다.

로건공항 역시 날씨로 인한 지연은 있었지만, 다른 일부 공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심각한 TSA 대기줄 문제는 아직 겪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 CEO는 "우리는 운이 좋았다"며 "물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 어느 시점에는 직원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건공항은 프레이밍햄에서 로건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원격 TSA 검색 시스템 도입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들은 프레이밍햄에서 미리 TSA 검색을 마친 뒤 보안이 확보된 버스를 타고 로건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1일 시작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BAKTA) 봄학기 등록 시작

3월 22일 개강… 민요 · 피리 · 단소 등 신규 프로그램 개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BAKTA, Boston Academy of Korean Traditional Arts)이 2026년 봄학기프로그램 등록을 시작했다.

BAKTA는 가야금, 아쟁, 한국전통무용 등 기존 개인 및 그룹레슨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한국전통음악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봄학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 과정을 확대했다.

새롭게 개설되는 수업으로 한국 전통 민요를 배우는 민요 클래스와 사물놀이 장단과 활용을 배우는 장구 수업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악기인 피리와 한국 전통 대나무 피리인 단소 수업도 마련됐다.

BAKTA는 전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과 함께 보스턴의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창의적으로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름 학기와 겨울 방학 기간에는 전문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게스트 아티스트 워크숍을 통해 사물놀이, 판소리, 탈춤, 소고춤 등 한국 전통예술을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 봄학기는 3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3주 동안 진행되며, 마지막 주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발표회가 열린다.

BAKTA 관계자는 "한국 전통음악과 예술을 배우고 싶은 어린이와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지역 사회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함께 나누는 교육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업 등록 및 자세한 정보는 BAKTA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 사 이 트 : www.bakta-boston.com

이 메 일 : KoreanArts-Boston@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원데이 무료체험을 해드립니다
연락을 주세요!


기미 / 잡티 / 리프팅 / 탄력 / 미백 / 여드름 / 아토피
Esther TL SGM ICD 781.454.1357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PREMIER WORKS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250년 전 독립전쟁 첫 대형 승전…영국군 철수의날이 중요한 이유

수백 명 모여 철수의 날 기념… "이날은 보스턴의 독립기념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국군이 보스턴에서 철수한 지 250년이 되는 17일, 이베큐에이션데이(Evacuation day)에 수백 명의 시민과 재연단, 정치인,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사우스보스턴 도체스터 하이츠에 모여 미국 독립전쟁 초기의 상징적 승리를 기념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친 이날 행사장에는 대포와 소, 민병대 재연단, 조지 워싱턴 장군 역할을 맡은 기마 인물까지 등장해 1776년 3월의 역사적 순간을 되살렸다. 참석자들은 이곳이 단지 한 지역의 유적이 아니라 미국 혁명의 흐름을 바꾼 장소라고 입을 모았다.

1776년 3월 17일, 영국군과 충성파 약 1만1천 명이 보스턴을 떠난 사건은 독립전쟁에서 식민지군이 거둔 첫 번째 중대한 승리로 평가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50년 전 도체스터 하이츠를 지킨 병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거듭 강조됐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도체스터 하이츠 기념비 아래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장소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어렵다"며 "이곳은 세상을 바꿨고, 모든 것을 바꾼 곳"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백파이프 연주자들과 주 및 지방 정치인들, USS 컨스티튜션 승무원들까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세인트 오거스틴 채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친 뒤 텔레그래프 스트리트의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정상까지 행진하며 철수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제퍼런에서 온 라베카 클렘프는 자신이 웨스트퍼드 출신 대륙군 병사 제임스 버터필드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며 "내 조상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도체스터 하이츠를 지켰던 이들을 기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영국군 철수는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 이후 식민지군이 보스턴을 11개월 동안 포위한 끝에 이뤄졌다. 당시 영국군과 도시에 남은 주민들은 좁은 시내에 갇힌 채 식량과 연료,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올드 노스 처치를 운영하는 올드 노스 일루미네이티드의 대표 니키 스튜어트는 "이날은 보스턴의 독립기념일"이라며 "그 포위 기간 동안 보스턴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고,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륙군에게도 포위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병사들은 긴 대치 속에서 피로와 좌절, 때로는 내부 갈등까지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단 하룻밤 사이 대포와 조립식 방어진지를 도체스터 하이츠로 끌어올리며 전세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그들에게는 이 언덕이 있었고, 그것을 활용할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조차 결국 선택지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 승리의 결정적 배경에는 헨리 녹스가 이끈 대담한 포병 수송 작전이 있었다. 당시 보스턴의 서점 주인이었던 녹스는 뉴욕주 포트 타이콘데로가에서 확보한 약 60톤의 포병 장비를 한겨울에 소와 말, 썰매를 동원해 약 300마일 떨어진 케임브리지까지 옮겼다. 그리고 이 장비는 1776년 3월 5일 아침, 도체스터 하이츠 정상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대포가 됐다.

〈전체 기사 읽기〉

영국군 사령관 윌리엄 하우 장군은 반란군이 하룻밤 사이 해낸 일이 자신들의 전군이 한 달 동안 해낸 것보다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체스터 하이츠에 대포가 배치되자 영국군 함대와 점령 중이던 보스턴 시내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고, 영국군의 위치는 순식간에 방어가 어려운 상태로 바뀌었다.

비영리단체 레볼루션 250의 의장이자 서폭대 역사학 교수인 로버트 앨리슨은 "대륙군은 도체스터 하이츠에서 자신들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런 행사는 세상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군은 이후 남은 7년의 전쟁 동안 다시는 보스턴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반면 매사추세츠는 독립전쟁 기간 내내 막대한 병력을 제공하며 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갔다. 농부와 대장장이, 선원과 상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 제국의 군대에 맞서 역사의 방향을 바꾼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다.

사우스보스턴 시민협회 회장 톰 맥그래스는 "공동의 목적 아래 뭉친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드 플린 보스턴 시의원도 "참전용사이자 지역사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날은



나라의 역사와 참전용사들을 함께 기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세인트 패트릭데이와 겹친 이날 행사에는 축제 분위기도 감돌았지만, 그 바탕에는 평범한 이들의 희생과 결단이 만들어낸 비범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었다.

텍사스주 프리스코에서 온 크리스 더피는 "월폴에서 자랐고 역사학 학위도 있다"며 "이 사건은 보스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뉴턴에 사는 그의 누이 로라 더피는 "이 일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오리건주 코밸리스에서 온 73세 베스 램브라이트는 회의 일정에 앞서 이베큐에이션데이 행사를 보기 위해 며칠 먼저 보스턴을 찾았다. 메이플라워호 순례자의 후손이라고 밝힌 그는 "독립선언서는 최고의 이별 편지였다"며 "나는 조지 워싱턴이 영국 함대의 철수를 바라봤던 바로 그 근처에 서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레볼루션 250의 대표 조너선 레인은 이날의 거센 바람을 가리키며 "도체스터 하이츠에 서면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며 "1776년 3월, 이 지형은 식민지군의 편이었다"고 말했다.

행사 내내 보스턴이 영국군을 가장 먼저 몰아낸 도시라는 자부심도 이어졌다. 사우스보스턴 출신 닉 콜린스 주 상원의원은 "뉴욕은 영국군이 마지막으로 철수한 도시였다"며 특유의 농담을 던져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치과,좋은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보스턴 부유층, 세금 부담에 매사추세츠 떠난다



플로리다 · 뉴햄프셔로 이동 가속, 자선 · 투자 · 일자리까지 흔들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고액 자산가들이 플로리다와 뉴햄프셔 등 세금 부담이 낮은 주로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주 재정과 지역 경제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의 카라 밀러는 16일 보도에서 보스턴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회사 트윈포커스의 공동창립자 폴 카거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5년 동안 내 매사추세츠 고객의 절반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카거는 이들이 보유한 순자산이 수십억 달러, 연간 소득이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가 교육, 의료, 안전, 도시 환경 등에서 여전히 미국 최고 수준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유층은 다른 계층보다 훨씬 더 쉽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플로리다 보카레이턴, 팜비치, 마이애미 등에 주택을 마련해 두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22년 말 매사추세츠에서 이른바 '백만장자세'가 통과된 이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는 연 소득 100만 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 기존 주 소득세 5% 외에 4%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넘는 소득에는 총 9%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세금이 단순히 연봉이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특정 해에 주택을 매각해 일시적으로 과세 기준을 넘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봉은 10만 달러에 불과하더라도 150만 달러짜리 집을 팔면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의 상속세 제도도 부유층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주에서는 200만 달러를 넘는 유산부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기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기사에 따르면 뉴욕주는 735만 달러부터 상속세가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는 상속세가 없다.

〈전체 기사 읽기〉

카거는 특히 자선 분야의 타격을 우려했다. 그는 고객들이 타주로 이주한 뒤 보스턴아동병원,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지역 소규모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기부를 점차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가와 투자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로 이주한 기업가 크레이그 웰치는 자신이 설립한 세 번째 회사가 플로리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사추세츠에 있었을 25명에서 30명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백만장자세 자체보다도 매사추세츠가 벤처투자자와 기업가를 반기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스턴 기반 벤처캐피털 매트릭스의 매니징 파트너 안토니오 로드리게스도 팬데믹 이후 부유층과 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AI 산업이 실리콘밸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 그 흐름의 일부가 매사추세츠로 다시 흘러들어왔겠지만 이제는 이를 받아낼 투자자와 창업 생태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시와 주의 경쟁력은 결국 일종의 플라이휠, 즉 선순환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도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바퀴가 느려지거나 멈추면 이곳과 다른 도시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작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백만장자세의 효과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매사추세츠에서 5천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약 2천 가구에서 2천600가구로 25%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기간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만큼, 기존 부유층 일부가 떠났더라도 남은 이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 통계상 증가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부유층 과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안겨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창업, 고용, 자선 기부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느냐에 있다.

카거는 "매사추세츠는 새 세금이 큰 순풍이었다고 보고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일 수 있다"며 "사람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나 하워드, 캄보디아계 미국인 첫 주 상원의원 탄생

크메르루주 학살 생존자 출신…매사추세츠 상원 입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로웰 출신 바나 하워드 의원이 18일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에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최초의 캄보디아계 주 상원의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하워드 의원은 이날 보스턴 주의사당 상원 회의장에서 열린 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했으며,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캐런 스필카 상원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그는 매사추세츠 제1 미들섹스 선거구를 대표한다. 이 지역구에는 로웰을 비롯해 드라컷, 던스터블, 페퍼렐, 팅스보로가 포함된다.

캐런 스필카 상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하워드 상원의원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결단력, 그리고 공공봉사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준다"

〈전체 기사 읽기〉

며 "난민이자 지역사회 지도자인 그는 상원에 강력한 관점과 주민들을 위해 성과를 내온 검증된 이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크메르루주 집단학살의 생존자인 하워드 의원은11살 때 캄보디아를 떠나 미국으로 왔으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형제들, 조부모를 잃었다고 밝혔다.

하워드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캄보디아를 떠나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그 당시에는 내가 선출직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 지역사회가 나를 키워주고 지지해줬으며 되돌려주도록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하워드 의원은 2020년부터 매사추세츠 주하원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 전에는 니키 송가스 전 연방하원의원 밑에서 일했으며, 매사추세츠 아시아계 미국인 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또 별도의 성명에서 "지역사회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지지해줬다"며 "이 새로운 역할에서도 계속해서 되돌려줄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워드 의원은 지난해 10월 별세한 에드워드 J. 케네디 전 주상원의원의 뒤를 잇게 되며3월 3일 실시된 특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hsb@bostonkorea.com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뚜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뚜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뚜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뚜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턴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SID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교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매사추세츠 주정부 ADU 건축자금 최대 25만달러까지 대출 지원

▸▸1면에 이어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융자는 설계와 허가를 이미 확보한 뒤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건축 후 영구융자(construction-to-permanent financing) 성격이 강하다. 즉, 설계도와 지방정부 허가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한다.

주정부는 설계와 인허가 같은 사전 개발 단계에 대해서는 매사추세츠 하우징 파트너십(MHP)이 운영하는 기술지원 자금(technical assistance fundin)을 먼저 활용한 뒤, 실제 착공 단계에서 매스하우징 융자를 신청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관심이 있는 한인들은 먼저 ADU 인센티브프로그램관심 양식(ADU Incentive Program Interest Form)을 작성해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웹사이트(https://www.mass.gov/forms/adu-incentives-program)

힐리 행정부는 지난해 어포더블 홈스액트를 통해 주 전역 단독주택 전용 조닝 지역에서도 ADU건축을 허용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ADU 확산을 가속하기 위한 별도 캠페인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무료로 활용 가능한 표준 ADU 설계안을 마련하는 디자인 챌린지, 사전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1천만달러 규모 기술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 매스하우징 융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주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ADU 캠페인의 핵심 단계라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ADU가 합법화됐더라도 설계, 허가, 자금조달 과정이 복잡해 실제 건축까지 이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한 홈 에쿼티(Home Equity, 주택 자산)를 이미 보유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었던 기존 홈에쿼티라인(HELOC)보다 더 낮은 금리와 더 유연한 조건을 제공해 중간소득층 가구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매스하우징의 마운저 아일루시 주택소유 프로그램 부사장은 "이번 상품은 기존 홈에쿼티라인보다 낮은 금리와 더 높은 담보인정비율을 제공해 중간소득 가구의 수요에 맞춘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 네트워크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빠르게 출범시켰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규 주택 유닛 건축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주택 소유주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매사추세츠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주택부지 안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거 유닛을 추가하는 ADU는 대규모 재개발 없이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관심 있는 주택 소유주는 지역 허가를 확보한 뒤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 대출기관과 연결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매스하우징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시·타운 공동구매, 전기요금 10% 절감 효과

▸▸1면에 이어서

서비스 역시 끊기지 않는다.

요금의 절약 정도는 거주하는 타운과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금에 따라 다르다. 웨스트포드의 경우 킬로와트당 14.35센트의 공급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내셔널그리드의 현재 기본 서비스 요금인 15.38센트보다 약 6% 낮은 수준이다. 만약 평균인 600킬로와트를 사용하는 주민이라면 6.2달러를 절약한다. 절감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기 사용이 높은 가정들에게 높은 유틸리티 비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도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줄어드는 것은 전기요금 전체가 아니라 공급요금뿐이라는 점이다. 실제 청구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즉 배송비(Delivery Service)와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비용, 예를 들어 매스세이브 관련 비용은 그대로 부과된다. 일부 가정의 경우 전체 요금의 약 3분의 2가 배송 및 의무 프로그램 비용이고, 실제 전기 공급요금은 3분의 1 수준에 그치기도 한다.

또한 시·타운이 계약한 통합구매 요금은 보통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는 반면, 내셔널그리드 등 대형 유틸리티 회사의 기본요금은 통상 6개월마다 바뀐다. 겨울철에는 더 비싸고 여름철에는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유틸리티 기본요금이 일부 지자체의 통합구매 요금보다 낮아질 때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연구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구매 요금이 약 70%의 기간 동안 대형 유틸리티보다 낮아, 소비자들에게 평균 약 10% 정도의 순절감 효과를 준다고 보고 있다. DPU도 전체 소비자 절감액이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주민이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요금서의 '공급 서비스' 항목을 보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수개월 동안 통합구매 요금제를 적용받고도 공급업체 이름이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청구서 표기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금서에서 기존 내셔널그리드 대신 '커뮤니티 일렉트리시티', '콘스틸레이션(Constellation)' 등 다른 공급업체 이름이 적혀 있다면 시·타운의 통합구매 프로그램에 가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대체로 '옵트아웃'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주민이 별도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다. 시와 타운 입장에서는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공급업체와 더 유리한 가격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개인적으로 민간 공급업체와 계약한 주민은 계약을 해지해야 지자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매사추세츠가 전력시장을 자유화한 지는 25년이 넘었다. 그 이후 주민은 내셔널그리드 같은 대형 유틸리티 회사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별도의 민간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됐다. 주정부는 다양한 민간 공급업체의 요금과 계약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공급업체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저렴한 '도입 요금'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나중에 요금을 크게 올리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소 한 곳의 공급업체는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매사추세츠 검찰도 개인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과다 지불했다는 보고서를 다수 축적해 왔다.

반면 지자체 통합구매 프로그램은 행정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계약을 검토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이 직접 비교 쇼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조건에 노출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

재생에너지 선택권도 있다. 일부 시의 경우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에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재생에너지 비율인 69%가 포함돼 있다. 기본 설정으로 자동 가입되는 표준 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79%로 더 높지만 가격은 기본형보다 3%가량 비싸다. 100% 재생에너지를 원할 경우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본형보다 약 10%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표준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의 링크에서 해당 시와 타운을 찾아 기본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주정부가 2월과 3월 전기요금에 대해 전체 25%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원한 점도 소비자들이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15%는 주정부 재정 지원이고, 나머지 10%는 추후 납부를 미루는 방식이어서 실제 절감 구조를 전기요금서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배송비(Delivery Services)에 적용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현실적인 완충 장치에 가깝다. 특히 높은 배송비와 각종 부과금으로 전체 전기요금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시·타운 단위의 공동구매 방식은 주민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간편한 절약 수단이라는 평가다.

3월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감각 여행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기는 체험형 전시 & 이벤트 추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따뜻한 봄기운이 시작되는 3월은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실내에서 편하게 즐기면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형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어 주말마다 어디를 갈지 고민하게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졌다. 예술, 과학, 놀이가 결합된 공간은 자연스럽게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3월 추천 전시와 이벤트를 엄선했다. 스크린 속 세상에 지친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진짜 경험을 선물할 시간이다. 지금 바로 티켓을 예매하고,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원더 뮤지엄 보스턴 (WNDR Museum Boston) — 예술이 살아 숨쉬는 몰입형 체험 공간

원더 뮤지엄 보스턴 (WNDR Museum Boston)은 2018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몰입형 인터랙티브 예술 뮤지엄이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We are all artists)"라는 메시지 아래, 관람객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다운타운 크로싱(Downtown Crossing)에 자리한 이곳은 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20여 개의 몰입형 설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의 인피니티 룸(Infinity Room)도 포함되어 있다.

빛과 거울로 가득 찬 환상적인 공간들을 지나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열화상 이미징, 인터랙티브 라이트 플로어, AI 아트 설치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약 1시간 30분에

〈전체 기사 읽기〉

서 2시간의 관람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관람 후에는 라운지에서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즐기거나, 기프트 샵에서 로컬 아티스트의 작품과 기념품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소: 500 Washington St, Boston, MA 02111

운영 시간: 월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화 · 수요일 휴무,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웹사이트: www.wndrmuseum.com/location/boston

다이노 사파리 (Dino Safari) — 50여 마리 공룡과 함께하는 선사시대 여행

전 세계를 여행하는 콘셉트로 구성된 워크스루 공룡 체험 이벤트다. 50종 이상의 움직이는 공룡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티라노사우루스(T. rex)와 스피노사우루스(Spinosaurus) 등 다양한 공룡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다.

짧은 동선으로 구성되어 어린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교육적인 요소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했다. 공룡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특히 높은 만족도를 주는 체험형 이벤트다.

고생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과학적 정확성이 돋보이는 이 전시는 3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모든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내 전시로 날씨에 관계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전시 현장 내 음식 판매는 없으나, 케임브리지사이드 내 더 치즈케이크 팩토리(The Cheesecake Factory), 가토 엑소티코(Gato Exotico) 레스토랑, 그리고 13개 매장이 입점한 푸드코트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 CambridgeSide, 119 First St, Cambridge, MA 02141



운영 시간: 수 ·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마지막 입장 오후 6시), 금 ·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 (마지막 입장 오후 6시)

웹사이트: dinosafari.com

티켓 구매: feverup.com/m/564900

레고 디스커버리 센터 보스턴 (LEGO Discovery Center Boston) — 레고로 가득한 꿈의 놀이터

레고 디스커버리 센터 보스턴(LEGO Discovery Center Boston)은 어셈블리 로우(Assembly Row) 안에 자리한 4만 3천 평방 피트 규모의 실내 테마 어드벤처 공간이다. 200만 개 이상의 레고 브릭(LEGO brick)으로 가득한 이곳은 3세부터 10세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놀이터로, 12개 이상의 체험 존을 갖추고 있다.

보스턴 도시 풍경을 미니어처 레고로 재현한 미니 월드(Mini World), 레고 4D 시네마(LEGO 4D Cinema), 왕국 퀘스트 레이저 라이드(Kingdom Quest Laser Ride), 가상현실 레이스 체험 더 그레이트 레고 레이스(The Great LEGO Race VR Experience), 히어로 존(Hero Zone) 레이저 미로 등 다채로운 어트랙션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워크숍을 통해 레고 빌딩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두플로 파크(DUPLO Park)는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레고 카페(LEGO Café)에서는 "빌드 어 버거(Build a Burger)" 밀 메뉴와 치킨, 채식 옵션, 스타벅스 커피 등을 즐길 수 있어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방문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을 권장하며, 온라인 사전 예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 598 Assembly Row, Somerville, MA 02145

운영 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 ·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표준 운영 시간 기준, 날짜별 변동 가능)

웹사이트: www.legodiscoverycenter.com/boston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PGA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첸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S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ath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17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기분이 변한다. 날씨처럼 변하고, 상황처럼 흔들린다.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한다. 기분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시작된다. 기분은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태도는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결정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분은 '날씨'이고 태도는 '기후'이다. 기분은 날씨(weather)와 같다.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러나 태도는 기후(climate)이다. 기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도 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태도이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이런 말이 떠오른다. 늘 따뜻한 사람, 늘 배려하는 사람, 늘 성실한 사람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태도이다.

성경(잠 4:23)은 감정보다 마음의 다스림을 말한다. 성경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감정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분노도 하셨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감정은 사람을 상처주는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태도는 언제나 사랑, 긍휼, 자비였다.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생기는 문제는 첫째 관계가 상하게 된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은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신뢰가 무너진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어떤 날은 친절하고, 어떤 날은 차갑다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셋째 공동체가 불편해진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사람의 태도는 분위기를 바꾼다.

성숙한 사람은 기분을 관리한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기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다스리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피곤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말한다. "지금 내가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라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인격이다.

성령의 열매는 태도인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가지 열매를 말한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를 말한다. 성령의 사람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사람들에게 요한복은 13장 34절 말씀을 전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태도는 사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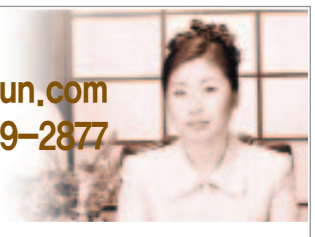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 나는 기분으로 살 것인가. 태도로 살 것인가. 기분은 순간이지만, 태도는 삶의 방향이다. 기분은 지나가지만, 태도는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기분보다 태도를 선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태도가 되도록 기도한다. 오늘 여기에서 누군가와 마주하더라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성숙한 우리이길 기도한다. 할렐루야!!

3월 22일 – 3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금전: 돈의 움직임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지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3, 28일 길일. 22, 24일 주의.

소띠 | 깊이 생각해보아야

●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할인판매를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들이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범띠 |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토끼띠 |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용띠 |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뱀띠 | 신중하게 행동해야

● 운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 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말띠 | 직접 확인하고

● 운수: 남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나 뭔가 사들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양띠 | 치유되고 아물면서

●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할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 마음의 주름이 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2,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원숭이띠 |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닭띠 | 대책을 세워놓아야

●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한번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7일 주의.

개띠 |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 운수: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줍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6일 길일. 22, 28일 주의.

돼지띠 |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품어도 좋겠습니다.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 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깁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철벽같은 장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STAGE
KARAOKE X STUDIOS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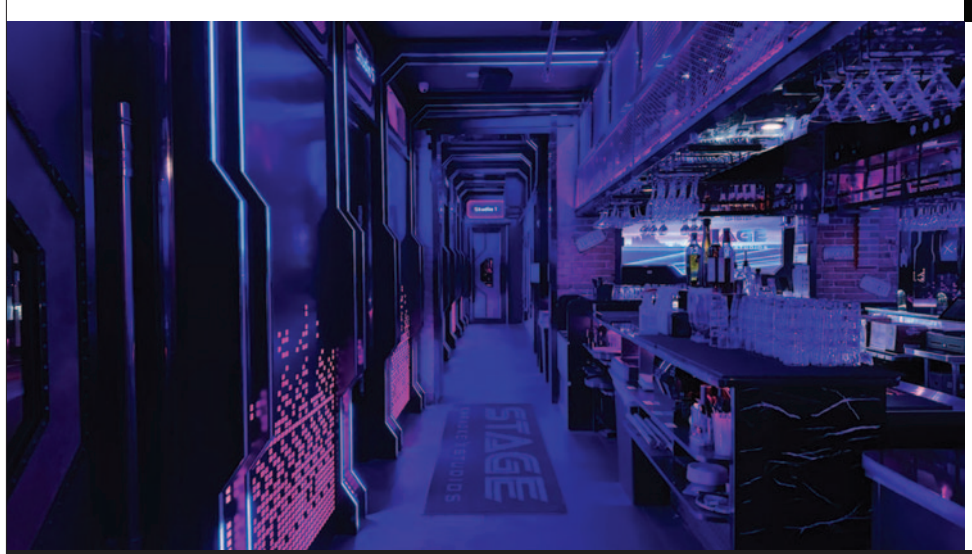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징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와 치킨 윙 등 음식 서비스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9)

중동전쟁과 주식시장

현재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다. 뉴스와 미디어는 전쟁 소식과 시장 하락을 반복적으로 전하며 긴장감과 두려움을 키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투자 자산을 줄여야 하나?", "혹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지기 쉽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까. 시장의 소음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투자라는 긴 여정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1. 불확실성이 수익을 만든다

투자 수익은 확실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감수한 대가, 즉 리스크 프리미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기업의 주가가 두세 배 오른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주식을 사들일 것이다. 그 결과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미래의 초과 수익은 사라진다.

우리가 기대하는 투자 보상은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불확실성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토양이다.

2. 역사가 보여준 미국 시장의 회복력

미국 주식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 World War II (1939~1945) 기간에도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약 50% 상승했다.

• Korean War (1950~1953) 시기에도 다우지수는 연평균 약 16% 상승하며 약 60% 가까이 올랐다.

• Vietnam War (1965~1973) 기간에도 시장은 약 43% 상승했다.

전쟁은 분명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군수, 에너지, 기술 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산업 기반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 왔고, 시장 역시 결국 회복해 왔다.

3.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

시장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정교한 전략을 찾으려 한다.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유망 산업을 찾고, 매매 시점을 계산하려 한다.

그러나 시장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장기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일관된 투자 원칙이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투자다

변동성이 커지면 무엇인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실제로 이런 시기에는 거래량도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활발한 움직임이 좋은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실수를 피했는가에 달려 있다. 은퇴 목표나 위험 감내 수준이 변하지 않았다면 뉴스의 소음만으로 투자 계획을 바꿀 필요는 크지 않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5. 불확실성과 함께 걷는 투자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정학적 갈등, 기술 혁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수들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시장은 긴 시간에 걸쳐 성장해 왔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분산 투자와 꾸준한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이 그 구조를 지탱한다.

전쟁이 지속하는 한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 수익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일 수 있다.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니라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장기 투자의 길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인류연재] 시절 인연과 유방암 검진



인스타그램 DM이 왔다. 20년 전 처음 만난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스팸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안하지만 혹시 지금 통화가 가능하냐'는 내용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점점이 수놓은 그 어느 문장에서도 내게 돈을 꾸거나 보험을 팔려는 의도를 읽을 순 없었다. 하물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친구와 대화할 의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기나긴 시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리스트의 아이디로만 존재하던 그를 실제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여보세요", 로 시작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길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 거듭 이어졌다. 잠시 머뭇대는 기척뒤에 친구는 내 리을 발음이 예전과 다르다 지적하며 웃었다. 해 질 녘 일요일 지하실을 훤히 밝히는 애정이 거기 있었다.

같은 대학을 나온 지인의 옛 연인이 얼마 전 뒤늦게 발견한 유방암으로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죽었다고 그가 말했다. 우리보다 몇 살 어린 후배의 때 이른 장례식을 목도한 뒤 유한한 생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진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다 멀리 사는 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으면 자신에게 그 소식이 제때 전해질런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따로 연락해 보기에 이르렀다 고백했다. 내가 ' 인스타그램에 나의 죽음을 포스팅하지 마라', 장군처럼 유언하지는 않을 텐데. 그의 여전한 순진무구와 낭만을 짓궂게 되받아칠 수도 있었지만 고맙다 인사하고 그만 생로병사에 관한 통화를 마쳤다. 깜깜한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쥐고 계단을 오르는 내 마음은 온통 '그래, 그러면 우선 유방암 검진부터 받아야겠지. ' 비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마흔을 넘어선 내가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매모그램 기계 앞. 나지막한 기계음이 음악처럼 흐르는 공간에서 높낮이 없는 음성으로 여성 촬영 기사가 줄줄 읊는 안내 사항을 흘려듣는다. 빛바랜 보라색 환자 가운 앞끈을 풀어헤친다. 레고로 조립해 각으로만 빚어진 사람 품에 안기듯 상체만 기계에 바짝 다가선다. 전문가의 손길에 나를 맡긴다. 이 자리에 선 순간부터 타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터가 된 내 신체 일부가 아파온다. 그러나 태연하게 고통을 음미하며 정면만을 응시한다. 마치 아무리 쥐어짜도 터지지 않는 한 쌍의 거대 여드름이 문제인 나를 모델로 촬영은 별 탈없이 마무리된다. 가운을 고쳐 입는 사이 나이 들수록 타인 손에 맨몸을 맡길 일이 점차 잦아질 거란 확신에 사로 잡힌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느낄 충격과 수치와 함께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해야 하다니. 또다시 서로 무심해져 버리기 전에 친구한테 검진 결과를 스팸 메시지처럼 써서 보내 보고 싶다.

보스턴장로교회
설립50주년 감사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보스턴 장로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시 : 2026년 3월 22일
장소 : 보스턴 장로교회 본당

감사 예배 11:00 am
기념 음악회 5:00 pm
만찬 6:30 pm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보스턴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www.bostonkorea.org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2026 정기 교사 연수회 • 사은회

변화하는 교육, 성장하는 교사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8:00

보스턴 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1부 교사 연수회

전체 강연 1: 김민정 [UMASS 교육대학원 교수]

전체 강연 2: 김경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우수교사, 장기근속 교사 &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시상식

2부 교사 사은회

저녁 식사

우수 배우자상 시상식

전통놀이 잔치

경품 추첨

참가 신청: QR코드 / 구글폼 2026 봄 교사 연수회 & 사은회 신청서 링크

참가비: $15/1인 (교사 가족동반 무료); 비회원교 $20/1인

등록 마감일: 3월 15일

문의: kosane2025@gmail.com

2026 봄 교사 연수회 & 사은회 신청서

후원

KSA-NE 이사회 • 교장단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Overseas Koreans Agency 재외동포청

H MART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특판전

GANGWON STATE SALE EVENT

Experience the finest of Gangwon State with our exclusive products showcase.

MAR.20th-MAR.26th, 2026



GOLDENWIND
Hwangtae Yangnyeom Gui
금빛바람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6.34 OZ
~~$10.99~~
$7.99



Wow, The Taste of Sokcho! Good Sundae
참좋은 식품
참 좋은
오징어순대
1.1 LB
~~$24.99~~
$15.99



인제군 정선군 JEONGSEON COUNTY 홍천군 HONGCHEON-GUN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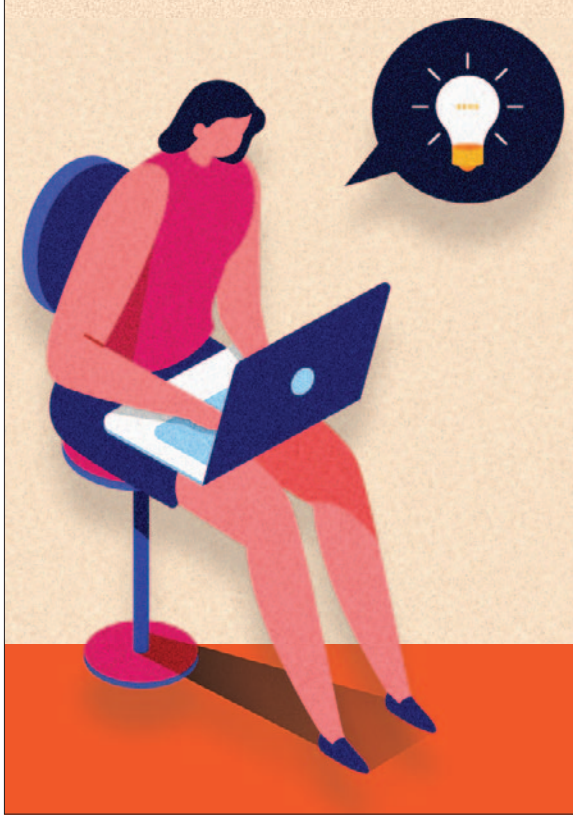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